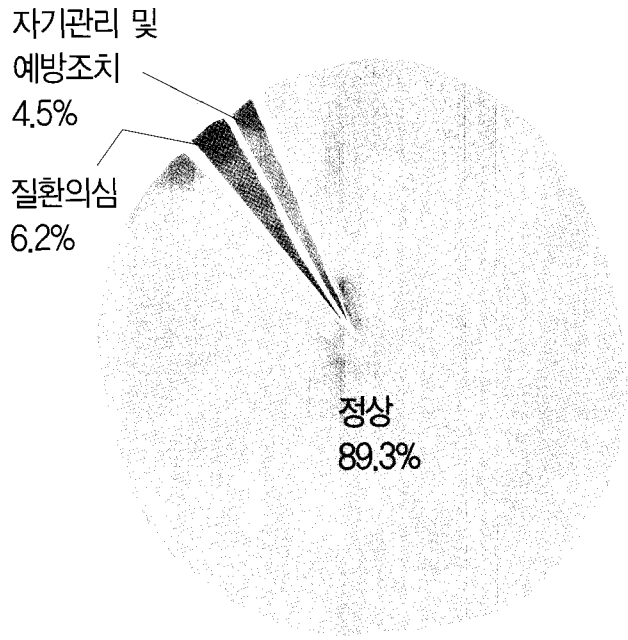


● 20대 직장인 비만도 유소견 현황



● 20대 직장인 GPT 유소견 현황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 20대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

비만에 따른 질환의심 간질환 예방 필요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20~29세 검진자는 20,441명이다. 그중 남성은 8,569명 여성은 11,871명이다.

20대 직장인 83.7% 비만으로 괴롭다

2008년 건강검진을 받은 2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만도를 살펴본 결과 20,430명 중 83.7%는 비만도에 따른 질환의심이거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 그 가운데 15.3%(3,130명)는 비만도에 따른 질환의심이 나타났고 68.4%(13,964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 건강 양호는 12.8%(2,612명)다.

20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만도를 검사한 결과 8,567명의 검진자 중 90%는 비만도에 따른 질환의심이거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 건강 양호를 보인 검진자는 3.7%(313명)뿐이다. 63%(5,394명)는 건강의 이상은 없지만,

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했고, 27.3%(2,342명)는 비만에 따른 질환이 의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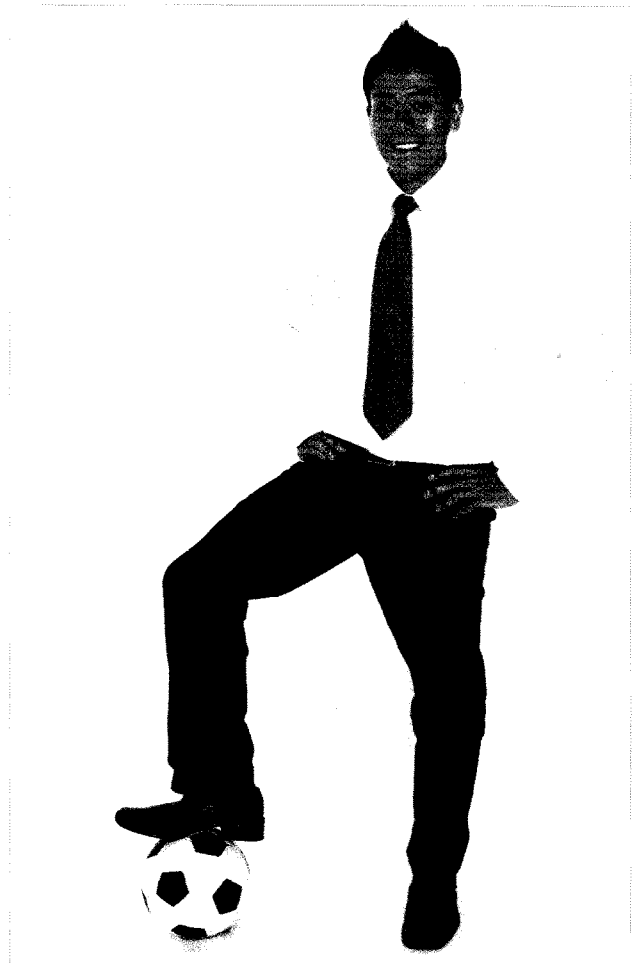
20대 여성 직장인은 20대 남성 직장인에 비해 비만도 위험은 낮았지만 총 11,862명의 검진자 중 6.6%(788명)는 질환의심이 나타났다. 그 외 19.4%(2,229명)는 건강 양호를 보였으며, 72.2%(8,569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

10.7%에게 간질환이 의심된다

간 기능 검사로 GPT(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)를 확인한 결과 검사를 받은 20대 직장인 20,425명 89.3%(18,238명)는 건강이 양호했고, 4.5%(928명)는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결과가 나왔다. 질환의심은 6.2%(1,259명)이다.

간 효소 수치를 알 수 있는 γ -GTP(감마 지티피)를 확인한 결과 검사를 받은 20대 직장인 20,424명 중 90.8%(18,555명)는 정상이었고, 2.2%(445명)는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한편 3.9%(798명)는 질환이 의심됐다.

GOT(아스파르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)를 검사한 결과 검사를 받은 20대 직장인 20,424명 중 97.5%(19,916명)는 정상이었고, 1.2%(239명)는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1.3%(269명)는 질환이 의심됐다. **MEDI**CHECK



간 기능 이상을 알 수 있는 GOT와 GPT



GOT(AST)와 GPT(ALT) 수치 비율은 간질환 종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. 간은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GOT, GPT검사를 통해 간 기능 이상, 간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. 정상치 GOT는 8~35 IU/l 이하, GPT는 4~36 IU/l 다. 50 IU/l 이상이면 재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. GOT, GPT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간염(급성·만성), 간경화, 지방간이다. γ -GTP(감마 지티피)는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암이나 결석으로 담관이 막힐 때 혈액 속으로 방출된다. γ -GTP의 정상치는 55 IU/l 이하다. γ -GTP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알코올성 간염, 담도폐색이다.

